

中世 불교행사로서의 觀燈과 변화 양상

최연주*

< 차 >

- I. 머리말
- II. 불교의례와 觀燈
- III. 觀燈의 변화와 성격
- IV. 맺음말

국문요약

觀燈 풍속이란 燈을 구경하는 의식을 말한다. 어떤 의례나 행사에 燈이 활용되는가에 따라 관등의 성격은 달라진다. 현전하는 사료를 통해 볼 때 관등 풍속은 불교의례인 연등회 및 팔관회와 관련이 깊다. 신라의 연등회와 팔관회는 고려 건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연등회와 팔관회에서는 갖가지 장식을 한 燈 수 만개를 밝히고, 특별 무대 주변에 등을 벌려 걸어 두었다. 궁궐 뿐 아니라 사찰에서도 호사스럽게 등을 걸어 두고, 각종 莊嚴物을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지만 불교의례로 열렸다. 그래서 놀이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려와 조선에서 연등회와 팔관회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의례기간 동안 국왕과 민들은 함께 등을 구경[觀燈]하면서, 다양한 공연을 보고 즐겨 화합의 장으로서 기능하였을 것이다.

조선은 신왕조 정통성을 강화하고, 유교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다. 국정의 안정화를 위해 승유억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점차 산간으로 밀려나고, 여성 중심의 기복 신앙이 더해지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그리고 연등회 의례기간 동안 남녀의 풍기 문란, 절도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례가 선행되는 과정에서의 과도한 재정 지출과 화재 위험성 등으로 인해 지배층에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 동의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불교의례인 연등회는 점차 축소되었고, 중기 이후에는 풍속의 일종으로 인식되면서 그 의미가 바뀌었다.

민간이나 사원에서의 연등회 개설은 거국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역 또는 사원 별 소규모 형태로 전개되었다. 민간에서 개최된 4월초파일 연등 행사를 살펴보면 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전기에 행해지던 상원연등과 4월초파일 연등회를 계승하고 있다. 다만 불교의례와 연관되는 일부 내용들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행태로 재창출되었거나 아니면 기복신앙과 연계되어 변형되었다. 관등 풍속은 불교의례와 같은 종교적 의미보다는 마을 안녕과 복을 비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놀이문화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주제어 : 관등, 연등회, 팔관회, 불교의례, 풍속

I. 머리말

觀燈 풍속이란 燈을 구경하는 의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관등 풍속으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하여 행해지는 제등행렬과 4월에 개최되는 함안 무진장 낙화축제, 10월에 개최되는 진주 유등축제 등이 있다. 어떤 의례나 행사에 燈이 활용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은 달라질 것이다.

관등 풍속은 불교의례인 연등회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연등회에서 燈 공양의 참된 의미는 등을 밝히는 것이 곧 연등이고, 연등을 보면서 마음을 밝히는 것을 看燈 또는 觀燈이다. 그리고 연등한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 관등이라 하였다.¹⁾ 사료에는 燃燈, 觀燈, 看燈,²⁾ 燈夕³⁾ 등 다양하게 서술되었으나, 燈이 갖는 의미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관등 행위에 대한 의미 부여는 어떤 의례 또는 행사에 걸어둔 등을 관람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 사찰 정기 의례인 연등회 때에 켜는 등을 관람할 경우 불교의례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정월대보름날 또는 특정 지역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낙화놀이, 불꽃놀이의 등을 관람하는 경우는 놀이로서 민속적 성격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관등은 연등회에서 의례의 한 부분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놀이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2) 看燈은 연등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179쪽.

3) 안지원은 燈夕은 상원연등회 저녁을 연등을 하는 저녁이라는 의미로 보았다. 한편 『동국세시기』에는 우리 풍속에 4월초파일 날 등불을 켜므로 燈夕이라 하였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燈夕을 다르게 서술한다. 문종 24년 2월 임신일(12일)에 연등회가 개설되었는데, 바뀐 이유가 15일 한식일, 13일 왕실의 제삿날이므로 12일로 옮기면서 이를 등석이라 했다. 정종 4년 2월 연등회를 지칭할 때 등석으로 기록하였다. 2월 연등회를 등석이라고 지칭하므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고려사』 권6, 세가 6, 정종 4년 2월 계미 및 권8, 세가 8, 문종 24년 임신; 『동국세시기』 4월, 팔일; 안지원, 앞의 책, 2005, 47쪽.

4) ‘등(연등)’의 의미에 대해서 기왕 연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에서 등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보면서, 어두움, 즉 미혹함을 밝혀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진리의 상징이다. 연등은 부처에 대한 공양법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연등은 등을 바치는 진실한 마음가짐이므로 연등 공양은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지혜의 광명을 얻어 중생의 무명을 밝히는 상징적 행위로 보고 있다. 안계현, 「고려시대 불교행사」, 『韓國佛敎思想史研究』, 동국대출판부, 1990, 233~235쪽; 김종명, 「고려 연등회(燃燈會)와 그 유산」, 『불교연구』16, 한국불교연구원, 1995, 48~50쪽; 이운수, 『연등회의 역사와 문화콘텐츠』, 민속원, 2014, 95~96쪽; 채상식, 「고려시기 연등회의 운영과 추이」, 『한국민족문화』54, 부산대, 2015, 106~108쪽.

문화와 세시풍속에서는 관등을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관등 풍속은 불교의례에서 출발하여 민속놀이로 변화된 것으로 본다.⁵⁾ 불교의례로서 연등은 부처계 등 공양, 관등이라 본다면, 풍속에서는 불과 관련된 놀이 자체로 본다. 그래서 불교역사학과 민속학에서 다르게 이해한다. 전자는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불교의례로서, 후자는 불놀이와 불꽃놀이를 중심으로 놀이문화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불교역사학에서는 관등을 상원연등, 2·8연등, 4·8연등 등 정기 의례 때 걸어 둔 燈을 관람한 것으로 해석한다.⁶⁾ 민속학에서는 관등을 놀이 또는 축제의 의미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이해하고, 세시풍속의 관점에서 논의하면서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문화콘텐츠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⁷⁾ 지금도 주요 지역에서 행해지는 불놀이와 불꽃놀이를 관등의 의미로 해석하고, 민족지적인 관점에서 불교 전래 이후 우리의 토착 불놀이 전통과 연결된 전승 놀이로 이해한다.⁸⁾

조선 중기 이후에 이르면 관등 행사를 놀이문화 또는 풍속의 일부분으로 인식한다. 민속놀이로서의 관등이 언제부터 세시 풍속과 놀이문화로 바뀌었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태조대 연등회와 별도로 都城에서 관등 행사가 있다. 세종대 관등을 금지한 것으로 보아 연등회와 다른 행사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고, 성종 이후에는 관등 행사를 풍속 또는 놀이문화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불교의례로서의 관등이 풍속으로 변화하는 배경과 그 양상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관등 행사는 세시풍속으로서 또는 4월초과일에 의례히 실시되는 행사로 이해하지만, 불교의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성격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그 동안 관등 행사를 연등회의 연계하여 불교의례로 이해하면서도 놀이문화로 변화되는 과정을 논의한 논고는 없다. 그래서 관등 행사와 관련된 사료를 재검토하여, 각 시대별 추이와 특징을 분석해 그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5) 최남선은 연등회가 조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불교적 의미는 퇴색되고 일반 민속의 일종으로 보았다(『조선상식문답』, 삼성문화재단, 1974, 104쪽).

6) 안계현, 앞의 책, 1990; 안지원, 앞의 책, 2005; 김종명,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 -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 문학과 지성사, 2001; 안계현, 『佛敎行事의 盛行』, 『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1975; 홍윤식, 『불교행사의 성행』, 『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1994; 김형우, 『高麗時代 燃燈會 研究』, 『國史館論叢』55, 1994; 이종수, 『조선시대 연등회의 存廢와 불교사적 의미』, 『불교연구』37, 2012; 채상식, 앞의 논문, 2015.

7) 한국불교민속학회·연등회보존위원회, 『연등회의 종합적 고찰』, 민속원, 2013; 이창식, 『佛敎民俗學의 研究序說 - 佛敎系 歲時風俗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26, 1994; 이윤수, 앞의 논문 및 『4월초과일 연등회 관등 풍속과 문화콘텐츠』, 『한국민속학』59, 2014; 고상현, 『연등회를 통한 궁궐 문화유산콘텐츠의 창의적 활용 방안 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20, 2014.

8) 김익두, 『“낙화놀이”의 지역적 분포와 유형에 관한 민족지적 고찰』, 『한국민속학』48, 2008.

불교의례로서 관등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기 동안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심으로 연등과 관등의 의미를 구분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관등 행사가 불교의례 차원에서 성격과 풍속으로서 변화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불교의례인 연등과 관등 행사가 민간 풍속 또는 놀이 문화로 변화되는 과정을 조선 후기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또 관등 풍속의 추이와 관련해 중기부터 궁궐 행사로서 관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와 인식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궁궐의 관등 행사 뿐 아니라 민간에서 행해지는 관등 행사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불교의례에서 풍속으로의 변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불교의례인 연등 행사가 풍속으로서 관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고찰해, 시대별 관등 행사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II. 불교의례와 觀燈

觀燈이란 燈을 구경하는 것이다. 등을 보는 것[觀燈]에 대해 관등과 연등을 불교의례로 묶어서 이해하거나, 의례인 연등회에서 등을 보는 행위 또는 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보기도 한다. 아무튼 불교행사로서의 관등은 등을 본다는 행위의 관점에서 행사의 일부분으로 보거나 연등회 자체 행사와 연계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연등과 관등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해 보자.

연등회는 석가탄신일인 4월초과일에 개최되는 불교의례이다. 하지만 신라에서 看燈 행위는 정기 의례인 정월 보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경문왕이 皇龍寺에 행차하여 간등하고 이내 여러 신료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⁹⁾ 또 진성왕이 황룡사에 행차하여 간등하였다.¹⁰⁾ 경덕왕과 진성왕이 황룡사에서 간등 행위를 한 시점은 정월 보름이다. 우리나라 재래의 습속과 연결된 불교의례로 보는 정월 보름의 연등을 上元燃燈이라 하는데, 신라는 정월 보름에 연등회를 정례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¹⁾ 간등을 넓은 의미에서 연등회로 이해하지만 등을 구경[觀燈]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등을 구경하는 것은 불교의례에서 등을 밝

⁹⁾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11, 경문왕 6년 춘정월 15일.

¹⁰⁾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 11, 진성왕 4년 춘정월 15일.

¹¹⁾ 삼국시대 연등회의 의미와 정례화에 대해서는 채상식, 앞의 논문, 2015, 109~110쪽 참조된다.

한편 신라의 看燈이 정월 上元에 열린 것은 風雨神으로서의 龍神에 대한 始農祈願祭인 龍童祭와 또한 농사와 관련있는 天文 太一星宿祭가 불교 수용 이후에 불교의 燈供養 儀禮인 연등과 습합되어 국가적인 행사로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우, 앞의 논문, 1994, 112쪽.

히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연등회의 의례 행위와 연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 사료를 보자.

신라가 처음 百座講과 八關會를 설치하였다. 거칠부 등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에 승려 惠亮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道左에서 보고, 드디어 함께 왕을 알현하였다. 이에 왕이 이를 僧統으로 삼았고, 비로소 百座講會와 八關法을 설치하였다. 그 법은 매해 11월[仲冬]에 궁궐의 뜰에 등을 모아놓고, 輪燈은 座에 걸고 香燈은 사방에 벌여 걸며, 彩棚 둘을 매어 달고는 온갖 놀이와 가무를 하면서 복을 빌었다.¹²⁾

안정복은 신라 진흥왕 12년에 팔관회가 백좌강과 함께 정례화된 것으로 보았다. 매년 11월에 팔관회는 개최되는데 이 때 등을 높이 달고 사방에 내걸었다. 팔관회는 여덟 가지의 계율을 엄격히 지키면서 불교에 입문하는 의례 중 하나이다. 신라와 고구려에서 열렸으며, 종교적인 금욕과 수행을 목표로 삼고 의례를 행하였다. 이후에 기복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의례로 변질되었다. 위 사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구려와의 전쟁과 연관된 신라 팔관회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기복과 추복을 위한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었다. 당시 팔관회에서 등을 구경[觀燈]하는 것은 의례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관등 행위는 팔관회와 연등회에 등을 구경하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신라와 고려에서 불교의례에서 행해지는 관등 행위는 의례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므로 넓은 의미로 연등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

고려에서도 연등회와 팔관회는 국가적인 연례행사로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연등회와 팔관회 개최를 언급한 바 있고, 곧 그의 遺訓에 따라 거국적인 행사로 개최하였다.

나의 지극한 관심은 연등회와 팔관회에 있다. 연등회는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회는 天靈·五嶽·名山·大川·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함부로 증감하려는 후세 간신들의 건의를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 忌日과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하여 왔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이대로 시행할 것이다.¹³⁾

건국 이후에도 연등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다만 성종 6년부터는 행사

¹²⁾ 『동사강목』 제3상, 신미년 신라 진흥왕 12년.

¹³⁾ 『고려사』 권2, 세가 2, 태조 26년 하4월.

가 번거롭고 국가재정이 막대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가¹⁴⁾ 현종 원년에 부활되었다.¹⁵⁾ 그 후 고려 멸망 때까지 국가 불교의례로 유지되었다. 고려 초기에는 정월 15일에 연등이 있었는데, 성종 6년 10월에 정회되었다가 현종 때 2월 15일로 복설되어 개최되었다.¹⁶⁾ 정기적인 연등회 외에 특설 연등회가 수시로 개최되었다. 석가탄신일인 4월초파일 연등도 특설 연등회로 출발했으나 불교의례화 과정에서 점차 상실화되었다.¹⁷⁾ 특히 정종 4년 2월에 왕이 연등회 참석을 위해 봉은사로 가서 태조 진영을 참배한 이후에 연등회 날 저녁에는 반드시 왕이 몸소 影殿으로 가 분향하는 것을 관례로 삼은 사실을¹⁸⁾ 고려해 보면, 국가적·호국적 의미를 내포하고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로¹⁹⁾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연등회와 팔관회에서 등을 구경하는 행위에 대해 검토해 보자.

왕이 정전으로 가 연등회에서 등을 구경[觀燈]한 후 술자리를 베풀었다. 태자를 비롯하여 재추, 臺省의 신하, 侍臣, 知制誥들이 참석했으며 한 밤중이 되어야 파했다.²⁰⁾

문종은 봉은사에서 개최된 특별 연등회에 참석한 다음 날 연등 구경을 가서 축하연을 베풀었다. 이 때 봉은사의 특별 연등회는 단순한 연등 의례가 아닌 듯하다. 모든 거리에 각각 3만 개의 등불을 밝히고, 중광전과 모든 관청에서는 누각을 채색하고 등불로 산 모양을 만들었다.²¹⁾ 이는 새로 조성한 불상의 준공을 경축하기 위해서였다. 매우 화려하고, 규모가 큰 연등 의례로 추정된다. 문종이 불상 준공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에 단순히 참석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연등을 구경하기 위한 관등 행위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 연등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일까. 갖가지 장식을 한 등을 밝히거나, 특별 무대 주변에 등을 벌려 걸어 둔 것은 연등회 뿐 아니라 팔관회에서도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팔관회는 다신교적이고 무교적인 요소가 혼재되었고, 토속신에 대해 제사를 지냈

14) 『고려사절요』 권2, 성종 원년 6월.

15) 『고려사』 권4, 세가 4, 현종 원년 윤2월.

16) 『고려사』 권69, 지23, 예11, 상원연등회의, 현종 원년 윤2월.

17) 안계현, 앞의 책, 1990; 안지원, 앞의 책, 2005; 김형우, 앞의 논문; 채상식, 앞의 논문 참조.

18) 『고려사』 권6, 세가 6, 정종 4년 2월 계미. 한편 태조의 眞殿行香은 봉은사가 창건된 광종 이후부터 연등행사 때에 행향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한기문,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1998, 250~251쪽).

19) 안계현, 앞의 책, 1990, 참조.

20) 『고려사』 권9, 세가 9, 문종 27년 2월 무술.

21) 『고려사』 권9, 세가 9, 문종 27년 2월 정유.

으며 국가태평과 왕실안녕 등도 기원하는 등 그 성격이 연등회와 달랐다. 하지만 연등 형태는 유사하였을 것이다. 당시 팔관회의 광경을 통해 알 수 있다.

11월에 八關會를 베풀었다. 유사가 아뢰기를, 전대의 임금이 해마다 仲冬에 八關齋를 크게 베풀어서 복을 빌었으니 그 제도를 따르소서하니, 왕이 이르기를 짐이 덕이 없는 사람으로 왕업을 지키게 되었으니 어찌 불교에 의지하여 국가를 편안하게 하지 않으리오 하고, 드디어 毬庭의 한 곳에 輪燈을 설치하고 香燈을 곁에 벌여 놓고 밤이 새도록 땅에 가득히 불빛을 비추어 놓았다. 또 가설무대를 두 곳에 설치하였는데 각각 높이가 5장 남짓하고 모양은 蓮臺와 같아서 바라보면 아른아른 하였다. 갖가지 遊戲와 노래·춤을 그 앞에서 벌였는데 四仙樂部의 龍·鳳·象·馬·車·船은 모두 신라의 고사였다. 백관이 도포를 입고 笏을 들고 예를 행하였으며, 구경하는 사람이 도성을 뒤덮어 밤낮으로 즐기었다. 왕이 威鳳樓에 나가서 이를 관람하고 그 명칭을 '부처를 공양하고 귀신을 즐겁게 하는 모임[供佛樂神之會]'이라 하였는데, 이 뒤로부터 해마다 상례로 삼았다.²²⁾

팔관회는 건국 초부터 국가적인 불교행사로 열렸으나 崔承老의 건의로 성종 6년에 중지되었다가²³⁾ 현종 원년 11월 崔沆의 건의로 부활되었다.²⁴⁾ 매년 11월 15일 개경에서 개최되었다. 고려 최대 축제라 할 수 있는 팔관회는 등을 밝히고 가무를 즐겼던 것은 불교에 의지하여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²⁵⁾ 그렇지만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각종 등이 적극 활용되었을 것이다. 태조가 개설한 팔관회에서도 윤등을 설치하고, 향등을 벌여 밤이 새도록 등불을 밝힌 것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팔관회와 연등회 등 의례에서 등을 걸거나, 등축 행위는 단순한 의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종 27년 2월 연등회를 다시 검토해 보자.

왕이 奉恩寺에 가서 특별히 연등회를 열고 새로 조성한 불상의 준공을 경축했다. 이틀 밤에 걸쳐 모든 거리마다 각각 3만 개의 등불을 밝히고, 重光殿과 모든 관청에서는 누각을 채색하고 등불로 산 모양을 만들었으며 풍악도 연주했다.²⁶⁾

22)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신성대왕 원년.

23) 『고려사』 권93, 열전 6, 최승로전.

24) 『고려사』 권93, 열전 6, 최항전.

25) 고상현, 앞의 논문, 2014, 522쪽.

26) 『고려사』 권9, 세가 9, 문종 27년 2월 정유.

봉은사에서 연등회 개최를 위해 개경의 모든 거리에 등불을 밝히고, 등불로 산 모양을 만들었다. 연등을 호사스럽게 설치한 곳은 궁궐 뿐 아니라 사찰도 화려하게 꾸몄는데, 숙종 7년에 왕이 神護寺에 행차하여 大藏會를 베풀고 낙성식을 거행할 때 대궐에서 신호사까지 길 양쪽에 수 만개의 등을 내걸은 것에서²⁷⁾ 짐작할 수 있다. 송나라 사신 서경도 고려의 연등회를 보고 2월 보름에 모든 사찰에서 등불을 켜는데 매우 변화하고 사치스럽고, 왕과 妃와 嬪들이 모두 가서 구경하고 나라 사람들은 도로를 메우고 시끄럽게 하였다.²⁸⁾ 했다. 문종 27년 2월 연등회 행사를 통해 사찰에서 각종 莊嚴物을 설치하여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남녀노소가 다 같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등축 행사가 아니었다.²⁹⁾ 연등회가 축제 형식으로 개최된다는 점은 그 만큼 규모가 크고 화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등회와 같은 불교의례는 간혹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관등행위는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충선왕은 즉위 직후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던 개혁정치 완수를 위해 연등회 행사에 참여한 직후 사림원의 핵심세력들을 불러 개혁의 완수를 당부하였다.³⁰⁾ 연등회를 통해 정치적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등회 개최를 전후하여 들뜬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모반들이 자주 기획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고종 45년 3월 유경과 김인준 등이 최의를 죽일 때 당초 4월초파일 연등회 관람을 계기로 거사를 은밀히 추진하였으나,³¹⁾ 사전에 계획이 누설되어 앞당겨 결행하였다. 또 원종 12년 다루가치 脫朶兒는 도성 바깥에 며칠을 머물면서 개경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반란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다루가치 脫朶兒더러 우리나라에는 4월초파일날 觀燈행사를 벌이는 풍속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 날을 틈타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있다고 귀뜸하니, 이 말을 곧이들은 脫朶兒가 도성 바깥에 머물며³²⁾ 歸京하지 않고 있다. 평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

27) 『고려사』 권11, 세가 11, 숙종 7년 9월 기유.

28) 『고려도경』 권17, 祠宇. 한편 이규보는 궁궐에서 개최되는 관등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경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이날 저녁 관등놀이 참으로 변화하여(此夕觀燈信繁浩) 강안전 아래 구경꾼들 배 짜놓은 듯 뻣뻣하네(康安殿下人如織)’ 『동국이상국집』 권16, 고을시, 賀同年兪侍郎升旦初侍燈夕宴.

29) 고려시대 사원에서 개최되는 여러 불교 행사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연등회 등의 불사 때 물품 판매 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교역의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이병희, 『高麗後期寺院經濟 研究』, 경인문화사, 2008, 82쪽.

30) 『고려사』 권33, 세가 33, 충선왕 24년 2월 신미.

31) 『고려사』 권28, 열전 9, 최충헌 부 최의.

32) 『고려사』 권27, 세가 27, 원종 12년 4월 경자.

들은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충선왕과 다루가치 脫朵兒의 사례를 통해 연등회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보았다. 연등회와 팔관회의 관등 행사는 비록 불교의례로서 개최되었으나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은 정치 세력들로부터 그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불교의례의 관등 행위가 아주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팔관회에서도 輪燈을 설치하고 香燈을 곁에 벌여 놓고 밤이 새도록 불빛을 비추었다. 높이가 5장 남짓하고 모양은 蓮臺라는 가설무대를 설치해 두고, 그 주위에서 갖가지 遊戲와 노래·춤을 추었다. 연등회에서도 모든 거리마다 수 만 개의 등불을 밝히고, 궁궐과 관청에는 누각을 채색하고 등불로 산 모양을 만들고 풍악을 연주하였으며 아동들은 호기놀이를 하였다. 낮에는 특별 가설무대를 중심으로 각종 무대 장치를 통해 백희와 가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고, 밤에는 등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분위기 띄우는데 향등·윤등이 아주 유용하였을 것이다. 등을 밝힌다는 것은 불교적 의미도 있지만,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³⁵⁷ 그래서 등을 구경[觀燈]하는 것이 풍속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형형색색의 등이 걸려 있는 화려한 행사에 국왕을 비롯하여 지배층도 참여하였다.

가-1) 觀燈 행사에 참석차 왕과 공주가 태상왕을 모시고 강안전에 행차했다.³⁴⁷

가-2) 왕이 공주와 함께 奉恩寺에서 등을 구경[觀燈]하였는데 재신과 추신들이 미처 오지 않으니, ~하략.³⁵⁷

가-3) 석탄일을 맞아 개경 사람들이 등을 달았다. 우왕이 평복 차림으로 몰래 대궐을 나와 걸어가면서 등을 구경[觀燈]하려고 말에서 내렸는데 마부가 조금 늦게 말을 몰자 우왕이 손수 채찍질을 하다가 말발굽에 차여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났다.³⁶⁷

³⁵⁷ 당시 관등 행사에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폭죽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색의 시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작년보다 구경거리 더 많은 올해의 관등 놀이(今年觀燈勝去年) 폭죽이 터지며 하늘 높이 유성처럼 흩어지네(火飛星高入天)' 『목은시고』 권32, 詩, 同柳巷觀燈西峯豚犬輩亦來 又至副樞新居山上益佳 歸途有微雨 困而就寐 晨興 尙有點滴 然不濕土 乃有所感 因題一首.

³⁴⁷ 『고려사』 권33, 세가 33, 충선왕 24년 2월 경요.

³⁵⁷ 『고려사절요』 권19, 충렬왕 3년 임인.

³⁶⁷ 『고려사』 권134, 열전 47, 우왕 7년 4월.

가-4) 우왕이 밤에 궁궐 밖으로 나가 등을 구경[觀燈]했다.³⁷⁾

가-5) 석탄일을 맞아 우왕이 좋아하는 신하들과 함께 花園에 가서 등을 구경 [觀燈]했는데, ~하락.³⁸⁾

가-6) 우왕과 毅妃가 화원에 가서 등을 구경[觀燈]했는데, 채봉과 잡희가 극 히 사치스러웠으며 노래와 음악을 새벽까지 연주했다.³⁹⁾

가)에는 우왕대 기록이 많지만, 고려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부족하지 않다. 2월 연등회와 4월초파일에 관등 행사가 정기적인 것이며, 국왕은 연등회가 개최될 때 공주 및 관료들과 함께 등을 구경[觀燈]하고 있다. 특히 조선 태종도 궐내의 연등행사에 참여한⁴⁰⁾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조선 초기까지 궁궐 안에서 개최되는 연등 및 관등 행사에 국왕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화려하게 치장한 등을 구경하는 것은 놀이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려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제공하였고 축제로 개최되었을 것이다. 각종 장치물과 화려하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연등회 개최를 전후해 분위기는 고조되고, 의례와 놀이로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연등회와 같이 의례기간동안에는 국왕과 민들이 함께 등 구경하고, 공연을 보고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전 계층이 참여하는 축제 형식을 띄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관련 놀이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연등회가 개최될 때는 불교의례 요소 이외에도 누각을 채색하고 등불로 기묘한 형상을 제작하였다. 특히 아이들은 종이를 각종 모양을 만들어 깃발에 붙이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동시에 펼치는데, 그 중에서 호기놀이를 참조해 보자.

나-1) 연등회를 열고 대궐 뜰에서 呼旗 놀이를 관람 한 후 布를 賞으로 하사하였다. 나라 풍속에 4월 8일은 釋迦의 생일이므로 집집마다 등불을 켜는데, 몇 십일 전부터 아이들이 종이를 오려 장대에 붙여 깃발을 만든 다음 고향을 지르며 마을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쌀과 포를 거두어 행사 비용으로 삼고 이를 呼旗라 불렀다.⁴¹⁾

37) 『고려사』 권134, 열전 47, 우왕 8년 4월.

38) 『고려사』 권135, 열전 48, 우왕 10년 4월.

39) 『고려사』 권136, 열전 49, 우왕 12년 4월.

40)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1월 임오.

41) 『고려사』 권40, 세가 40, 공민왕 13년 하4월 신축.

나 2) 4월 8일은 등을 단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날이 석가여래가 탄생한 날이라 한다. 봄철에 아이들이 종이를 끊어서 旛를 만들고 물고기의 껍질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다투어 모여 때를 지어 마을과 거리를 돌면서 연등감을 달라고 조른다. 이것을 이름하여 호기라고 한다. 이날이 되면 집집마다 장대를 세우고 등을 단다. 호부한 집들은 크게 채색 등잔의 층층 사다리를 만들어 단다. 층층으로 달린 수많은 등잔들은 별이 하늘에 별여 있는 것 같다. 도성의 사람들은 밤새도록 놀며 구경한다. 말썽꾸러기 소년들은 혹 등을 쳐다보고 쏘아서 맞히는 것을 즐겨한다. 지금은 불교를 숭상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더러 등을 다는 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성대하지 않다.⁴²⁾

나 1)은 『고려사』, 나 2)는 『용재총화』에 수록된 호기놀이 기사이다. 나 1)에서 고려에서는 연등회가 개최될 때 호기놀이도 동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보아 국왕을⁴³⁾ 비롯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한 부분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나 2)에서는 도성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그것은 사료 말미에서 호기놀이가 예전처럼 성대하지 않다고 한 것에서 당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호기놀이는 연등회 때 아이들이 중심되어 즐기는 놀이로서 관동 행사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나)를 통해 고려와 조선 시대의 호기놀이는 큰 축제로 전개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의례적 행사는 크게 위축되고 풍속의 일부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례로서 작동하던 관동 행위가 놀이의 한 부분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내용을 정리하면 신라와 고려 후기까지 관동 행위는 연등과 같은 의례에 포함되었으나, 오랜 기간을 거쳐 오면서 불교 의례의 변형과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의례 행위로 인식되기 보다는 놀이 내지 풍속의 한 부분으로 점차 변질되어⁴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조선시대 관동 행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 전기에는 전 왕조인 고려의 유습이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신왕조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유교 질서를 구축하여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숭유억불 정책을 실시하였다. 태조는 불교에 우호적이었지만 불교의 時弊 또는 佛弊를 집중적으로 개혁하였

⁴²⁾ 『용재총화』 권2.

⁴³⁾ 공민왕이 궁중 뜰에서 호기놀이를 구경하는 것은 연등회 의례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왕은 궁중에서 별도로 관람하는 것이 관례로 보인다. 『고려사』 권41, 세가 41, 공민왕 15년 하4월 무오.

⁴⁴⁾ 고려시대 불교의례 행사가 종교 놀이문화로 발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김형우, 앞의 논문, 1994, 117쪽에서 상론한 바 있다.

다. 태종은 불사의 폐지, 사찰 소유 전답·노비의 재분배 및 국가로의 몰수, 종파와 사찰 재정비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세종은 經行 및 僧錄司의 폐지 등을 통해 불교 억압 시책을 적극 실시하였다.⁴⁵⁾ 불교가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등회와 팔관회를 어떻게 인식되었을까.⁴⁶⁾ 다음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1) 都堂에서 八關會와 燃燈會를 폐지하기를 청하였다.⁴⁷⁾

다-2) 門下府에서 상소하여 초과일에 燃燈의 설치를 정지하도록 청하니, 회답하지 아니하였다.⁴⁸⁾

다-3) 금년 4월 초8일의 燃燈은 금년 上元日의 예에 의하라고 명하고, 또 옛 물건을 고쳐서 쓰고 지나치게 낭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⁴⁹⁾

다-4) 禮曹에 지금부터 4월 8일에 대궐 안의 燃燈을 없애라 전지하였다.⁵⁰⁾

다-5) 사간원에서 啓하기를 燃燈은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임금이 부처에게 供養하고 중에게 齋供하는 것도 또한 다 금하지 못하는데, 어찌 유독 연등만 금할 수 있겠는가. 뒷날에 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뒤에 이를 금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씀하였다.⁵¹⁾

다-6) 圓覺寺의 탑이 이루어지니, 燃燈會를 베풀어서 낙성하였다.⁵²⁾

다-1)에서 연등회는 팔관회와 함께 태조 8년 도평의사사에 의해 폐지가 제의되었으나, 태종 16년에 가서야 1월 15일 상원연등이 폐지되었다. 4월초과일 연등회는 다-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궐 내의 연등회⁵³⁾를 없앨 것을 하명한 것을

45) 한우근, 『儒敎政治와 佛敎-麗末鮮初 對佛敎施策-』, 일조각, 1997 참조.

46) 조선시대 연등회에 대해서는 안계현, 앞의 책, 1990, 261~268쪽에서 상론하고 있다. 한편 팔관회의 수록제로 변화에 대해서는 김희준,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 『호서사학』30, 2001 참조된다.

47)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갑인.

48) 『정종실록』 권4, 정종 2년 4월 신축.

49)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4월 정사.

50)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3월 기해.

51) 『세종실록』 권39, 세종 10년 3월 을사.

52) 『세조실록』 권42, 세조 13년 4월 계묘.

53) 고상현은 조선 전기 설행된 연등회는 불교의례로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궁중에서는 왕의 덕을 찬양하고 만수무강을 축원하며 신하들의 축수를 위한 朶才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었을

보면 직전까지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에서 조선 초기에 신료들은 연등회와 팔관회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연등회 또는 연등은 정기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특히 세종은 풍속에 4월초파일을 부처의 탄생일이라고 하여 燃燈과 관등놀이[觀戲]를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요즈음 諫院에서 폐해를 말하고 파하기를 청하였다. 네 생각에 오래된 습속을 쉽사리 고칠 수 없으나, 오직 이 습관만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절[僧舍] 이외에서의 中外 연등은 일절 금하라 하고한 바⁵⁴⁾ 있다. 당장 연등 행사를 금지할 수 없으니, 한양에서 먼저 금지하고 이듬해부터 지방도 금지시켰다. 그리고 4월초파일 연등 행사를 중지한 첫 해에 관례대로 개최한 者들에게 죄를 주지 말라고 하였다. 과연 연등회 개설 금지가 제대로 지켜졌을까는 의문이다. 세조는 4월초파일 연등회가 개설되었을 때 忠順堂에서 신료들과 공공연하게 관등하였고,⁵⁵⁾ 연산군은 微服으로 잠행하여 경희루에 올라가 만세산 관등을 관람하였다.⁵⁶⁾ 한편 연산군 4년에 4월초파일 행사와 관련하여 司經 成重淹이 지금 4월 8일에 士族의 부녀들이 月山大君의 齋宮에 모여들어 밤을 새워 觀燈을 하고, 승려들과 같이 거처하니 더러운 풍속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으나⁵⁷⁾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등회 금지는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민들은 불교의례로서 참여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성종대 이후에 4월초파일 연등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가 차원에서 의례는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과 사찰에서는 행사 규모가 축소된 채 지속적으로 개설되었다.⁵⁸⁾

신라와 고려·조선 초기까지는 관등이 불교의례의 한 부분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中宗 이후부터 불교의례인 연등회의 관등 행사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즉 국가 차원의 의례가 아니라 풍속으로서 관등 행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Ⅲ. 觀燈의 변화와 성격

것으로 보고 있다(앞의 논문, 2014, 524쪽).

⁵⁴⁾ 『세종실록』 권52, 세종 13년 4월 경자.

⁵⁵⁾ 『세조실록』 권30, 세조 9년 4월 무진.

⁵⁶⁾ 『연산군일기』 권62, 연산군 12년 4월 신유.

⁵⁷⁾ 『연산군일기』 권29, 연산군 4년 4월 을미.

⁵⁸⁾ 안계현, 「불교 억압책과 불교계의 동향」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81, 171쪽.

신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 건국 직후에 이르기까지 국가행사로써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심으로 관등 행위에 대해 앞서 살펴보았다. 조선 국왕의 명으로 연등회는 폐지되었지만, 민간 행사로 이어져 왔다. 관등 행사가 풍속으로 변화된 배경과 인식의 변화 양상, 그리고 풍속으로서의 관등에 대해 차례로 검토해 보자.

1) 관등에 대한 인식 변화

조선 전기에 연등회는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공공연하게 불교의례로서 시행되기도 하였다.⁵⁹⁾ 놀이문화가 특별히 없었던 당시를 감안하면 등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都城 곳곳을 유람하고 다녔을 것이다. 성리학이 차츰 뿌리를 내리면서 사원과 민간 등에서는 개설된 연등은 그 성격이 유희적인 것으로 변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불교의례로서의 연등 및 관등보다는 놀이 문화와 볼거리로서 그 성격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유교를 바탕으로 한 규제와 불교계 폐단이 가장 연관이 깊을 것이다. 불교의례로서 관등 행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문화 또는 볼거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민간 풍속으로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연등회 개최를 전후하여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성종 9년 경연이 끝난 직후 4월초과일 연등의 폐단에 대해 논하면서 남녀 희롱 문제와 과도한 비용 지출 등에 대해 지적한다. 당시 강효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4월 8일 도성 사람들이 다투어 연등을 일삼으니,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남녀가 모여서 술을 마시며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하며 희롱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실로 이는 弊風입니다고 하였다. 이 말은 들은 성종도 옳다 하였다. 곧 성종은 4월 8일 각 고을의 가로에 燈을 다는 것은 일절 금하고, 민가와 寺社는 금하지 말라고 사헌부에 지시하였다.⁶⁰⁾ 남녀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희롱하는 등의 풍기문란이 공공연하게 일어나자 공공장소에서 연등회 개최를 금

⁵⁹⁾ 조선 태조부터 세조까지의 연등회 및 연등 개설과 관련하여 기왕 연구에서 지적한 내용을 참고해 보면 첫째, 조선 초 연등은 정월 15일 전후의 상원일과 4월초과일 불탄일에 걸쳐 시행되었고, 둘째, 태종 12년까지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상원일과 불탄일의 연등이 행해졌으나, 3년 뒤에는 연등회가 혁파되었다. 셋째, 연등회가 혁파된 이후라도 불탄일에는 궁궐에서 연등이 행해진 것으로 보아 국가적인 행사로 시행된 상원일의 연등은 없어지고 민간 차원에서 불탄일 연등만 행해졌다. 넷째, 세종 13년에는 불탄일에 궁궐에서 행해지던 연등마저도 혁파되고, 다만 사찰에서만 불탄일에 연등을 행하던 전통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채상식, 앞의 논문, 2015, 117~118쪽.

⁶⁰⁾ 『성종실록』 권91, 성종 9년 4월 병신.

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공식적 금지령으로서 불교의례로서의 연등회와 풍속으로서의 관등행사를 구별한 것으로 이해된다. 풍기문란만 문제가 아니었다. 연등회가 개최될 때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종 17년 5월 대사헌 金克成·장령 兪仲翼 등이 올린 상소가 주목된다.

4월 초여드렛날 부녀들이 산등성이에 올라가 觀燈하느라 밤이 이미 3更이 되었는데, 慈壽宮의 別監과 각 色掌 군사들이 돌입하여 붙잡고, 長衣·毛冠·首髻 등의 물건을 빼앗아 갔습니다. 부녀들이 산등성이에 모여서 밤이 깊도록 놀이 함은 지극히 그른 것이기 때문에, 本府가 추고하여 이미 밝혔습니다. 자수궁이 내려다보이는 곳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별감들이 금해야 함이 준례이기는 합니다만 부녀자의 집은 비록 수색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인을 보내어 하거나 혹은 피하도록 한 뒤에 하는 것이 준례인데, 지금 별감들이 그들의 복식을 빼앗기까지 하여 지극히 외람했기 때문에 어제 이미 추고하기를 청한 것인데, 지금 자수궁이 추고함은 공편하지 못하다고 上言하여 허물을 본부에 돌리므로 審理하기가 편치 못하여 감히 避嫌합니다.⁶¹⁾

이 사건은 4월초파일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그 전모는 다음과 같다. 4월 초여드렛날 부녀 4~5명이 慈壽宮 산등성이에 모여 觀燈하는데, 자수궁의 別監과 각 色掌들이 무례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을 듣고⁶²⁾ 조사해 보니 위 사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건을 강탈당했던 것이다. 그래서 별감과 각 색장들을 추고하였고, 이에 중종은 헌부가 별감들과 그 부녀들을 추고함은 모두 옳은 일이니 피험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처럼 연등회를 계기로 풍기문란은 물론 절도사건도 일어나자 과도한 비용 등 폐단을 거론하면서 개설을 금지시킨 것이다.

앞서 검토한 풍기문란과 절도사건 등 연등회 개최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폐지 명분을 찾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연등 행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집중 부각되었다. 연등은 등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 야간에는 화려한 불빛으로 주위 시선을 끌 수 있다. 하지만 재료가 종이와 기름으로써 화재에 매우 취약한 물품들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연등 개최는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다음 사료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임금이 漢城府에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집집 마다의 燃燈 놀이에 화재가 날까 두렵다. 금지하도록 하라. 우리 나라의 풍속에

61)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5월 병오.

62)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 4월 갑진.

이 날을 석가의 탄신일이라 하여 집집마다 燈을 켜 놓는다. 장대를 많이 세우고 수십 개의 등을 연달아 달며, 燈으로 새나 짐승, 물고기나 龍의 형상을 만들어 대단히 호화롭게 하므로 구경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⁶³⁾

성종은 연등 행사 당일엔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가 날 것을 염려해 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등을 어떻게 설치하고 밝혔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화재 위험을 동반한 행사는 분명하다. 고려에서 일어난 화재는 매우 컸다. 목종이 詳政殿으로 가 등을 구경[觀燈]하고 있는데 大府의 기름 창고에 화재가 일어나 불이 번져 千秋殿을 태웠다⁶⁴⁾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목종 12년 정월의 연등 행사 도중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궁궐 내에 켜둔 등의 불씨가 기름 창고로 옮겨 붙어 난 것으로 짐작된다. 목종이 궁전과 창고가 잿더미가 된 것을 보고 비탄해 하다가 병이 들어 政事를 돌보지 못했을 정도로⁶⁵⁾ 매우 큰 화재였다. 등 자체에 촛불과 인화성이 강한 물질인 종이, 바람 등으로 인하여 화재의 위험성은 늘 안고 있었다. 조선 성종이 연등 놀이 당시 화재가 날까 두려워 행사를 직접 금하도록 지시할 정도로 연등 의례는 위험한 행사였다. 그런데 성리학을 뿌리내리게 한 대표적인 국왕인 성종은 排佛的 태도를 견지했지만, 연등회를 전면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등으로 인한 화재를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연등회 행사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등회 개설에 따른 남녀간 풍기문란, 절도사건, 과도한 경비 지출 등을 비롯하여 화재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보니 행사 개설 자체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것을 빌미로 폐지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다음은 조선 중기 이후 관등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성격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중기에 접어들면서 연등 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초기까지만 해도 연등회를 불교의례로 인식했으나, 중기 이후에는 풍속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다음 사료를 참조해 보자.

상이 徐 給事(徐觀瀾) 관소로 가서 배례를 행한 뒤에 차를 들자고 청하고 술을 들자고 청하였다. 급사가 이 나라에서는 정월 초하룻날 저녁에 觀燈놀이를 합니까 라고 물으니, 통사가 4월 8일에 관등을 합니다고 답하였다. 또 급사가 이 나라의 節日을 알고자 합니다하니, 통사가 삼월 삼짇날과 오월 단옷날 등입니다고 말하였다.⁶⁶⁾

63) 『성종실록』 권54, 성종 6년 4월 병술.

64) 『고려사』 권53, 지 7, 오행 1, 목종 12년 정월 임신.

65) 『고려사』 권3, 세가 3, 목종 12년 정월 임신.

선조 34년 1월에 명나라 사신과 통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때도 4월 초파일 연등에 개최되었으나, 국가적 중요 행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서 성종이 각 고을의 가로에 燈을 다는 것은 일절 금지하고, 민가와 寺社는 금지하지 말라고 조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민간에서 즐기는 풍속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⁶⁷⁾ 그것은 중종 34년 명나라 사신이 개경에 머물고 있을 때 개성부에 특별 지시를 한 내용에서 잘 알 수 있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천사가 초8일 개성부에서 유숙할 것인데 이 날은 바로 觀燈하는 날인 바, 개성은 古都라 반드시 이 풍속이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上元에 관등하고 우리나라에서는 4월초파일에 관등하여 풍속이 서로 다르다. 풍속이 다른 것은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으나 천사가 만약 이를 보고서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라 필시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할 것이다. 개성부에 下諭하는 것이 옳다.⁶⁸⁾

4월초파일 연등이 비록 불교의례이기는 하지만 중종의 전교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의 풍속 중 하나로서 중국에서 시행하는 관등과는 다른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4월초파일 연등회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의 지역 풍속이라 한 점에서 당시 지배층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연등회가 의례로서 기능을 하기 보다는 지방의 놀이문화 또는 볼거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궁궐의 관등 풍속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사료를 주목해 보기로 하자.

라-1) 신 등이 삼가 듣건대 전하께서 관등날 저녁에 후원에다 오색 비단으로 만든 등불 수백 개를 줄지어 걸어 놓고 즐기셨다고 하니,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이 사실입니까?⁶⁹⁾

라-2) 초파일에는 전례에 의하여 등을 구경[觀燈]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院

⁶⁶⁾ 『선조실록』 권108, 선조 32년 1월 갑오.

⁶⁷⁾ 이와 관련하여 4월초파일은 승유역불의 조선시대에 들어와 더욱 민간의 명절로 자리잡은 것이 아닌가 한다. 관등놀이는 조선시대에 큰 도시나 장시의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성대한 연등행사를 벌인 데서 비롯되었다. 왕실이 중심이 된 고려시대의 연등행사는 정월이나 2월에 행해진 것과 대조적으로 조선시대에는 민간에서 부처님 탄신일과 결합되어 4월초파일에 행해진 것이라는 지적은 참조된다. 이창식, 앞의 논문, 311쪽.

⁶⁸⁾ 『중종실록』 권90, 중종 34년 4월 신축.

⁶⁹⁾ 『인조실록』 권31, 인조 13년 8월 경자.

直을 폐하지 않아 燈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이를 듣고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우리 백성이 몇 달 동안 마음을 써서 이제 이미 병이 나아가니, 燈夕의 觀燈은 전례에 따라 거행하라.各司에 명하여 전례에 의하여 사무를 하게 하였다.⁷⁷⁾

라-3) 임금이 集慶堂에 나아가니,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임금이 도제조에게 말하기를, 오늘 저녁은 燃燈하는 밤이다. 都民들은 부자 형제가 서로 이끌면서 등을 구경[觀燈]하러만 나만 혼자니, 이 무슨 팔자인가 하였다.⁷⁷⁾

라-1)에서 인조가 4월초과일과 무관하게 8월에 궁궐 안에 등 수 백개를 걸 어두고 즐겼다. 이는 불교의례와 관련이 없는 관등 행사로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궁궐에서 임금을 위해 별도의 등을 달고 관등한 것은 의례라기보다는 별도의 풍속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2)에 따르면 영조는 4월초과일에 맞추어 궁궐 안에 등을 달도록 명하였다. 그러면서 관례대로 관등을 거행 하라고 하였다. 성종대 이후 궁궐에서 관등 풍속이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음을 보여준다. 라-3)에서 한양 도성 사람들도 관등을 즐기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 한양에서는 관등 풍속이 아주 성대하게 치루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결국 궁궐에서는 연등회의 불교의례로서 관등 행사는 대부분 사라졌고, 풍속과 불거리의 일종으로 관등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풍속으로서의 관등

불교의례인 연등회와 팔관회에서 연등과 윤등으로 등을 켜 놓고 다양한 행사를 하였다. 두 의례는 주요 무대를 중심으로 오색 등과 다양한 등이 사방으로 내걸리고, 화려한 무대를 꾸미게 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놀이문화와 불거리의 부재였던 전근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한편 조선 후기 당시 불교 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득남과 치병 등 복을 빌고 액을 때우기 위해 사찰을 방문하였을 것이다. 법회에 참석한 여성들과 민간에서는 기복 신앙으로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 이후 연등회는 공식적으로 개설되지 아니하고, 불교계와 여성을 중심으로 개설되었을 것이다. 거국적 행사가 아니라 사원별 소규모 형태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간 또는 사원에서는 관등 풍속이 어떻게 전개되었

⁷⁷⁾ 『영조실록』 권107, 영조 42년 4월 병오.

⁷⁷⁾ 『영조실록』 권120, 영조 49년 4월 병신.

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중기 이후 민간에서 행해지는 연등 관련 자료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다. 다만 정월 보름날 종이로 해와 달의 모양을 오려 용마루에 꽂는다. 이는 卜說을 믿어 나이가 해와 달의 直星에 만난 사람은 종이로 해와 달의 모양을 오려 나무에 끼워 지붕 용마루에 꽂는다. 또 달이 뜰 때 햇불에 불을 붙여 달을 맞이한다. 그리고 종이로 여러 가지 형상의 등을 만든다.⁷²⁾ 정월 보름의 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용상 고려와 조선 전기 연등회와 유사하다. 이는 불교의례는 점차 사라졌지만 등을 매다는 행위는 풍속 또는 놀이문화로 전승되고 있음을 말해준다.⁷³⁾ 이에 4월초파일 풍속에 대해 살펴보자.

8일은 곧 석가모니의 탄신일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이날 등불을 켜므로 燈夕이라 한다. 며칠 전부터 인가에서는 각기 燈竿을 세우고 위쪽에 꿩의 꼬리를 장식하고 채색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어 단다. 작은 집에서는 깃대 꼭대기에 대개 老松을 붙들어 맨다. 그리고 각 집에서는 집안의 자녀들의 수대로 등을 매달고 그 밝은 것을 길하게 여긴다. ~중략~ 등의 이름에는 수박등·마늘등·연꽃등·칠성등·종등 ~중략~ 만세등·남산등 등이 있는데 모두 그 모양을 상징하고 있다. 등을 만들 때 종이로 바르기도 하고, 붉고 푸른 비단으로 바르기도 한다. 雲母를 끼워 飛仙과 花鳥를 그리기도 하고, 평편한 면마다 모가 진 곳마다 三色의 돌돌 만 종이나 길쭉한 쪽지 종이를 붙이기도 한다. 그리하여 펠릭이는 모습에 매우 멋이 있다. 북등[鼓燈]에는 장군이 말을 탄 모양이나 삼국의 고사를 그렸다. 또 影燈 안에는 鏝機를 만들어 놓고 종이를 잘라 말타고 사냥하는 모습이나 매·개·호랑이·이리·사슴·노루·꿩·토끼 모양을 그려 그 선기에 붙인다.⁷⁴⁾

조선 후기의 4월초파일은 아주 화려한 풍습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집집마다 등 대를 세워 놓고, 깃발을 다는 모습과 수십 종의 등 이름이 등장하고, 등에 그려진 그림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낮에는 탈춤이라 하여 장난감 저자를 세워서 아이들의 기쁜 날로 만들고 밤에는 觀燈이라 하여 서울 한복

⁷²⁾ 『동국세시기』 정월, 상원.

⁷³⁾ 현전하는 낙화놀이 또는 즐불놀이의 전국적 분포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19개 지역에서 개최되는데 그 개최 시기가 정월 보름전후 7곳, 4월초파일 12곳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이 놀이가 불교 민속의례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북 안동시 풍천면 화화마을에서 개최되는 선유 즐불놀이는 음력 7월 보름께 개최되는데, 이 놀이는 불교적인 성격의 놀이도 아니고, 마을굿적인 성격의 놀이도 아닌 양반들의 풍류놀이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김익두, 앞의 논문, 123~126·131~133쪽.

⁷⁴⁾ 『동국세시기』 4월, 팔일.

판에 큰 燈대를 세우고 各色의 혼란한 등을 천개 만개 달고 일제히 초를 켜다.⁷⁵⁾ 고 한다. 4월초파일 夜禁 즉 야간 통행금지도 없었고 鐘街의 밤거리는 낮과 같이 밝았고, 성 안의 남녀는 저녁부터 남산에 올라가서 등을 구경했으며 인산인해로 축제가 이어졌다.⁷⁶⁾ 특히 신라의 팔관회 모습 중에서 輪燈은 座에 걸고 香燈은 사방에 벌여 걸다⁷⁷⁾는 형상과 유사하다. 고려의 팔관회에서는 毬庭의 한 곳에 輪燈을 설치하고 향등을 곁에 벌여 놓고 밤이 새도록 땅에 가득히 불빛을 비추어 놓았다. 두 곳에 가설무대를 설치하였는데 각각 높이가 5장 남짓하고 모양은 蓮臺와 같아서 바라보면 아른아른 하였다.⁷⁸⁾고 묘사하였다. 결국 신라와 고려의 팔관회 모습과 거의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고려 문종대의 연등회, 조선시대 4월초파일 연등회 내용, 태종대 상원연등에서의 용과 봉황 그리고 호랑이와 표범 燈을 묘사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조선 후기 민간에서 정월 보름 등을 매다는 행위와 4월초파일 연등 행사는 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전기에 행해지던 상원연등과 4월초파일 연등회를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기 이후에는 관등 행사는 연등회라는 불교의례와 연관되지 않고 풍속으로서 개최되었다. 유교지상주의가 거듭되면서 불교는 왕실과 양반에게 철저히 배척되었다. 연등회는 사찰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관등 행사는 불교의례와 연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간에서 개최된 4월초파일 연등 행사는 신라시대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전기에 행해지던 상원연등과 4월초파일 연등회가 계승되었다. 당시 불교 법회에 참석한 대부분은 여성들로서, 대개 득남과 치병 등 복을 빌고 액을 때우기 위해 사찰을 방문하였을 것이다. 산간 불교화 또는 여성 중심의 불교로 변하면서 연등회는 사찰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관등은 불거리 또는 놀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풍속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 관등 풍속은 마을 축제로서 단오 민속놀이처럼 농경 생산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부처와 천지신명을 아울러 즐겁게 하여 생산 활동의 활력소를 얻고자 하였다.⁷⁹⁾ 연등회 의례에서의 관등 행위가 종교적 의미보다는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비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놀이문화로 점차 변형되었다. 다만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기복 신앙과

⁷⁵⁾ 최남선, 앞의 책, 1974, 104쪽.

⁷⁶⁾ 안계현, 앞의 책, 1990, 265~268쪽. 한편 조선시대 서울의 관등놀이에 대해서는 박경하, 『朝鮮時代 서울의 歲時風俗과 놀이』, 『서울의 사회풍속사』, 서울학연구소, 1995, 155~156·171쪽 참조된다.

⁷⁷⁾ 『동사강목』 제3상, 신미년 신라 진흥왕 12년.

⁷⁸⁾ 『고려사절요』 권1, 태조 신성대왕 원년.

⁷⁹⁾ 이창식, 앞의 논문, 1994, 312쪽.

연관되어 새로운 형태의 문화로 계승되었을 것이다.

IV. 맺음말

觀燈 풍속이란 燈을 구경하는 의식을 말한다. 연등한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을 관등으로 보기도 한다. 신라에서는 정월 보름에 연등회를 정례화 하였고,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팔관회에 등을 높이 달면서 사방에 걸쳐 달았다. 따라서 관등은 연등회와 팔관회의 의례와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건국 이후에도 연등회와 팔관회는 한 동안 행사의 번거로움과 국가재정 때문에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곧 복설되었고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연등회 뿐 아니라 팔관회에서도 갖가지 장식을 한 등을 수 만개씩 밝히고, 특별 무대 주변에 등을 벌려 걸어 두었다. 국가적 의례 행사에 있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등을 많이 활용한 측면도 있다. 궁궐 뿐 아니라 사찰에서도 연등을 아주 호사스럽게 설치하고, 각종 莊嚴物을 설치하여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하였다. 연등회가 개최될 때 호기놀이도 동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보아 함께 즐기는 축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연등회의 화려한 풍속은 조선 초기에도 지속되었다. 화려하게 치장한 등을 구경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놀이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려와 조선에서는 팔관회 및 연등회는 큰 축제가 되었다. 연등회 등의 의례기간 동안 국왕과 일반 민들이 함께 등을 구경하고, 각종 공연을 보고 즐기며 화합의 장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신왕조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유교 질서를 구축하여 국정의 안정화를 위해 승유억불 정책을 실시하였다. 성종대에 이르러 연등회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공공연하게 개설되었다. 하지만 그 성격은 다소 바뀌게 되었다. 연등 개설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많아 심각한 문제를 지닌 연등 행사는 달갑지 않았을 것이고, 연등회를 계기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비용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금지시켰다.

조선 중기 이후 불교의례였던 연등회를 풍속의 일종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 변화의 배경은 풍속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시 불교 법회에 참석한 대부분은 여성들로서, 대개 득남과 치병 등 복을 빌고 액을 때우기 위해 사찰을 방문하였을 것이다. 법회에 참석한 여성들과 민간에서는 기복 신앙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민간이나 사원에서의 연등회 개설은 거국적인 행사

가 아니라 지역별 또는 사원별로 소규모 형태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궁궐에서는 불교의례로서 연등회의 관등 행사는 대부분 사라졌고, 불거리 또는 놀이 문화로서 관등 풍속이 이어졌다. 당시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이 즐길만한 놀이문화가 특별히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등을 구경[觀燈]하는 그 자체가 흥미 있는 불거리로 인식되었고, 곧 풍속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개최된 4월초파일 연등 행사는 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전기에 행해지던 상원연등과 4월초파일 연등회를 계승한 것이다. 다만 불교의례와 연관되는 내용들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행태로 재창출되었거나 아니면 기복신앙과 연계되어 바뀌었다. 관등 풍속은 마을 축제로서 단오의 민속놀이처럼 농경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수행하면서 생산 활동의 활력소를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등회 의례에서의 관등행위가 종교적 의미보다는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비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놀이문화로 점차 변형되었다. 다만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기복 신앙과 연관되어 새로운 형태의 문화로 계승되었을 것이다.

■ 2016년 7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6년 8월 23일 |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30일 ■

참고문헌

<사료>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려도경』, 『동국이상국집』, 『목은시고』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연산군일기』, 『성종
실록』, 『중종실록』, 『선조실록』, 『인조실록』, 『영조실록』, 『용재총화』, 『동사강목』, 『
동국세시기』

<저서, 논문>

고상현, 「연등회를 통한 궁궐 문화유산콘텐츠의 창의적 활용 방안 연구」 『동아시아불
교문화』20, 2014.
김익두, 「‘낙화놀이’의 지역적 분포와 유형에 관한 민족지적 고찰」 『한국민속학』48,
2008.
김종명, 「고려 연등회(燃燈會)와 그 유산」 『불교연구』16, 한국불교연구원, 1995.
김종명,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 -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 문학과 지성사, 2001.
김형우, 「高麗時代 燃燈會 研究」 『國史館論叢』55, 국사편찬위원회, 1994.
김희준,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 『호서사학』30, 2001.
박경하, 「朝鮮時代 서울의 歲時風俗과 놀이」 『서울의 사회풍속사』, 서울학연구소,
1995.
안계현, 「불교 억압책과 불교계의 동향」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81.
안계현, 「佛敎行事의 盛行」 『한국사』6, 국사편찬위원회, 1975.
안계현, 『韓國佛敎思想史研究』, 동국대출판부, 1990.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이병희, 『高麗後期 寺院經濟 研究』, 경인문화사, 2008.
이윤수, 「4월초파일 연등회 관등 풍속과 문화콘텐츠」 『한국민속학』59, 2014.
이종수, 「조선시대 연등회의 存廢와 불교사적 의미」 『불교연구』37, 2012.
이창식, 「佛敎民俗學의 研究序說 - 佛敎系 歲時風俗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26,
1994.
채상식, 「고려시기 연등회의 운영과 추이」 『한국민족문화』54, 부산대, 2015.
최남선, 『조선상식문답』, 삼성문화재단, 1974.
한기문,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민족사, 1998.
한우근, 『儒敎政治와 佛敎-麗末鮮初 對佛敎施策-』, 일조각, 1997.
홍윤식, 「불교행사의 성행」 『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1994.

Abstract

Ceremony of the light and changing patterns as medieval Buddhist ceremony

Choi, Yeon-Joo

Ceremony of the light is ceremony to watch the light. Ceremony of the light is linked to Buddhism Ceremony Yeondeungheo(燃灯会). Yeondeungheo and Palgwanheo(八關会) have held since Goryeo Dynasty, Two celebration's methods are igniting the lights which is decorated and hanging the lights in the special stage. In celebration, lights and other decorations were luxuriously installed at temple as well as palace. so they provide various attractions.

Yeondeungheo and Palgwanheo might have been big festivals for duration of Goryeo and Joseon Dynasty when leisure culture was not developed. During the event, King and the people watched the lights and enjoyed the performance together, so they made bonding. But, Ceremony of the light was linked to Buddhism had changed through the Joseon Dynasty.

Joseon Dynasty started to suppress Buddhism and to force Confucianism. These policy brought about New dynasty's legitimacy. So, Yeondeungheo had been recognized a kind of customs after the middle of Joseon Dynasty when Confucianism established oneself. Yeondeungheo which civilians or buddhist monk held would have been small size in respective locality or temple, not enormous size.

Buddha's Birthday which civilians held succeeded SangwonYeondeung(上元燃灯) and Yeondeungheo on Buddha's Birthday(仏誕日 燃灯会) which had continued through Silla, Goryeo and the former of the Joseon Dynasty. Nevertheless, Contents was linked to Buddhism might had created new formation or changed relatively with faith to pray for a blessing. Ceremony of the light was gradually

established as villager's safety and luck rather than religious meaning.

Key word : Ceremony of the light, Yeondeungheo(燃灯会), Palgwanheo
(八関会), the celebration of Buddha's birth, a kind of
customs.